보 도 자 료

KOPRI 극지연구소	◆ 2023. 9. 15. (금) 배포 ◆ 총 3쪽 (본문 2쪽, 첨부 1쪽)
	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	강민구 문화홍보실장 ☎ 032-770-8631 김창석 문화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

세종기지, 남극영화제서 최우수 촬영상·남우주연상 수상

□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만든 영화 'Melting Monster'가 남극동계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촬영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.

□ Melting Monster는 기후변화로 동토가 녹아 미확인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스릴러 영화로,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 김창은 대기과학대원이 연출을 맡았다.

□ 남극동계국제영화제는 2006년 시작된 비상업적 영화제로, 남극과 아남극권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러나라 월동연구대원들이 각자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남극의 고립된 환경에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국제 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.

□ 올해 영화제에는 48시간 제한 부문에 26편, 자유 부문에 14편 등 총 40편이 출품됐으며,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자유부문에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한 'Melting Monster'를, 48시간 제한 부문에 'Non-Piction : What happened at Sejong Station' (감독 박해리 기계설비대원)을 출품했다.

□ 48시간 제한 부문은 남극동계국제영화제의 독특한 출품방식으로, 영화제 참여자는 물건과 소리, 인물, 행위, 인용문 등 영화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5가지 조건을 안내받은 다음, 48시간 이내에 영화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.

□ 영화제 수상작은 남극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. 우리나라는 2014년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처음 영화제에 참여했으며, 지난 2020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제작한 Pandora's Box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.

□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"K-콘텐츠의 저력을 남극에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. 안정적인 기지 운영을 기본으로, 대원들이 끼를 발산하고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극지연구소와 기지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"라고 전했다.

붙임. 세종과학기지 남극동계국제영화제 출품작

붙임 **세종과학기지 남극동계국제영화제 출품작**

■ Melting Monster (자유부문)

○ 감독 : 김창은 대원 (남극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/대기과학)

○ 내용 :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동토에서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명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

○ 링크 : https://www.wiffa.aq/en/film/1078

■ Non-Piction : What happened at Sejong Station (48시간 제한 부문)

○ 감독 : 박해리 대원(제36차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/기계설비)

○ 내용 : 세종기지에서 월동기간 중 탈골로 인해 생긴 사건

○ 링크 : https://www.wiffa.aq/en/film/1061